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정보전달체계 연구*

Developmental Alternatives and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 System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ingle-Parent Famili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여성연구소
교수/연구원 김경신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Prof. : Kyeong Shi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to propose developmental alternatives and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these objectives, the concurrent-type program for single-parent families that emphasized communication skills, psychological strategies, and the importance of family relationships was constru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pre-, post test through 163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it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steem, satisfaction of life and communication. Several programs for single-parent families using on-line or off-line were analyzed and more effective alternatives were proposed.

For improving of wellbeing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welfare system must be changed to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nd systematic information service network.

주제어(Key Words):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ies), 교육 및 상담(education and counseling), 정보 전달체계(information service system)

Corresponding Author: Kyeong Shin, Kim,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300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4 Fax: 82-62-530-1329 E-mail: kks@chonnam.ac.kr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D00311)

I. 서론

최근들어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부모 한 사람과 자녀들로만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해마다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가구 중 이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 1990년 7.8%, 1995년 8.6%였으며 2000년 인구센서스 결과 9.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부모가족 증가의 우선적인 원인으로는 이혼율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이혼건수의 경우 '90년의 4만5천7백건에서 '95년 6만8천3백건, 2002년 14만5천3백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도 '90년 11.3%, '95년 16.6%, 2002년 47.4%로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970년의 10배에 이르는 결과이다. 이혼가구 주 수도 1966년에서 2002년 사이에 3만5천에서 65만1천으로 1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혼부부의 연령계층별 분포의 변동을 살펴보면, 20대의 구성비는 감소한 반면 40대의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한부모가구가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의 순으로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장혜경 등, 2001).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중 8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족으로서, 이러한 여성가구주 수는 전체 가구 대비 1995년 9.7%에서 2000년 11.6%로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질병이외에도 교통사고와 산업화의 산물로 인한 중년남성의 사망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별 가구주수도 1966년에서 2000년 사이에 455천에서 156만2천으로 3.4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한부모가족의 증가문제는 이제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 한부모가족의 적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역시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도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대부분의 가족이 사회관계망

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내 상호작용 뿐만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편모들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상실감이나 재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곤란을 겪게 되며(김영희, 1996; 옥선화 등, 2001; 한경혜, 1993), 이들의 자녀들은 부 부재 이후에 오는 감정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증가된 책임임을 완수해야하는 역할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의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현은강 이순덕, 1992; Hetherington & Anderson, 1989). 또한 호주제도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등의 법적, 제도적 한계로 최근들어 여성 한부모가족들의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족원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재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의 제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히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사회의 재사회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가족생활교육이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유영주·오윤자, 1990). 또한 교육과 더불어 가족상담 역시 가족원의 결손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대처능력을 개발해주고 심리적 자원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해주므로, 한부모가족이 정상적으로 사회 안에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담체계가 활성화되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요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장혜경 등, 2001), 교육시설, 재원 등이 빈약하여 교육환경이 풍부하게 확보되지 못한 형편이고, 특히 사회의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여성상담 혹은 일반

상담기관에서 주로 자발적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행정요원들에 의한 취업 상담이 주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실제적으로 도움받는 비율은 많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러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2002).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농촌지역 편부모가족(김경신, 1999), 편부모아동 또래집단(최선화, 2000) 이혼적응(김득성, 2001) 등 일부 특정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교육 및 상담의 효과 탐색과 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면적 공간뿐만 아니라 좀더 접근이 용이한 가상 공간(강기정 등, 2002) 등 다양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기초로 이들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중요성을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육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와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주목하여 기존의 체계를 검토하고 이의 구체적인 정보구성내용과 전달방법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정보 전달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으로서 교육과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효율적 정보전달 방안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최근들어 사회복지 실천방법에 있어 대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가족복지정책의 방향도 좀더 비금전적인 서비스, 즉 교육 및 상담, 가정원조서비스, 급식이나 보육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대상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나 상담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문제가 계속 주목을 끌면서 가족과 사회의 연계성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끊임없이 적응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가족원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적응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주고 더 나아가 사회의 역기능적 현상을 회복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하여 과도한 역할 긴장, 역할 과부담을 느끼게 되며(Berman & Turk, 1981; Weiss, 1979), 이에 못지않게 가족원에게 발생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정서적인 문제로서 특히 절망감이나 책임감, 슬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김오남, 1998; 김정자, 1985; 조희선, 1991; Amato, 1987; Weinraub & Wolf, 1983). 따라서 이러한 역할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Booth와 Amato(1991), Webster-Stratton(1989)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적응에는 경제적 어려움, 역할과중, 사회인식, 정서적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니의 양육기술, 어머니의 적응 상태,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김양호 등, 2002; 옥선화 등, 2002).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주로 모자복지 담당 행정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가족 대상의 교육은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주로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양지도, 생활개선 교육의 형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교육은 사회가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각 기관별 협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경신, 1999).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가족 발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유도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사회교육, 자조집단 형성, 전문상담, 가정조성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한국여성개발원, 2000), 이들 교육이 여성 가구주뿐만 아닌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은 이들의 다중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내면적 자원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교육 그 자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과의 병행을 통하여 문제예방적 차원의 교육, 치료적 측면의 상담(유영주 등, 2000)이라는 다차원적인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자조그룹의 형성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역시 필수적이다(조성혜, 1997). 그러나 최근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많이 보여졌지만, 체계적으로 교육과 상담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혜경 등(2002)도 이혼여성에 대한 정책과제 제

언에서 부모교육 활성화와 상담사업의 활성화를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하였고, 상담인력 확대 및 상담시설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특히 상담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없이, 요보호가구의 경우 관할지역내 행정요원에 의해 경제문제 등의 기초상담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나 자녀의 문제를 가족상담의 틀에서 다루어주어야 이들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가족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상담원의 경우 가족복지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임춘희, 1999). 특히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이들의 적응문제나 갈등 등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날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파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색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및 상담이 일부 실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동적 전달체계가 일반적이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아동, 노인 등 대상 중심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부족하다. 앞으로 한부모가정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일부 한정된 계층이 아닌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체계가 필요할 것인데(장혜경 등, 2002), 이를 현재의 체계대로 다루어나갈 경우 매우 큰 혼란과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향후 일부 대상자만을 목표로 기존의 일률적인 사업을 실시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대상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통합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과 사회를 밀접히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편모가족에 대해서는 농촌정착 프로그램 등이 첨가되어야 한다거나, 공단지역이라면 직업과 연관된 가족생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

전달체계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감안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경신, 1997).

2.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 등으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복지의 기본 목적에 적합한 체계는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도 대부분 요보호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구제에 치우치고 있어 포괄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임춘희, 1999; 최연실, 1999).

여성 관련 시설이나 기관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기 보다 일반 여성을 위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복지시설 역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인 증가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더욱이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는 예산이나 규모면 등에서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서비스들은 포괄적인 복지기관에서 사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온 경우가 일반적이고, 상호 연계적이고 체계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정부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의 연계망 구축이나 협력체계가 절실한 형편이다(장혜경 등, 2001).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서로 가까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한부모 가족 관련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들을 지원하는 중심센터가 설립되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연계망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양해경, 2001). 이처럼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보전달체계는 전문적인 관리자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요보호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편모가족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소집교육이나 상담에 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인쇄물이나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육이나 상담의 경우에도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특히 자녀의 경우 성장기 동안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복지주체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사이트 운영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조그룹결성 등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므로 매체를 통한 집단적 강화회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웹공간을 이용한 정보전달체계는 익명성, 시간 및 공간의 무제약성, 정보 접근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 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자조집단 참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강기정 등, 2002).

그리고 다양한 정보전달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련된 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점차적으로 인터넷활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정보전달이나 상담 등의 매체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매우 권장할만 하다. 그러나 현재 몇몇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이들은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양해경, 2001), 보다 전문적인 정보체계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편모들의 경우 가족생활교육의 가장 유용한 기관으로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김경신,

1997)는 점에서, 정보전달매체의 선택이나 내용 구성에 있어 협조체제의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복지기관과 교육기관은 제도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원과 정보의 교류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나 공동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매체의 구성과 관리에 있어 연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III. 연구방법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효과 검증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수월성을 고려하여 여성한부모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고 동일한 지역구

내에서 모자복지법상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으로 나누어, 교육 및 상담 실시후 그 효과를 비교검증하였다. 교육집단은 공동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소년 자녀(12세-17세, 남녀)를 가진 30가족(모 30명 자녀 40명 총 7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부실기재분을 제외한 27가족(모 27명 자녀 34명 총 6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비교육집단은 교육집단의 사후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되 연령, 학력 등 소득의 변인에 있어서도 교육 집단과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중 부실기재자를 제외한 총 106명의 자료가 최종분석되었다.

2)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구성

교육 효과 검증을 위하여 기 개발된 관련 프로그램(김경신, 1999; 김득성, 2001; 최선화, 2000)을 토대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1박2일 숙박형, 모자녀 동시교육형), 주 목표는 자존감 향

〈표 1〉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구성

주 제	교육/상담 내용		시간	주요 목표	방 법
	요 목				
현대사회와 한부모가족원의 역할	-현대사회의 변화: 정보화, 성역할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 한부모가족의 현재 -한부모가족원의 바람직한 자세 -사회적지지의 중요성과 주변자원 인지		2	-자존감 향상 -성역할관 변화 -사회적지지 확인 -현대사회의 변화 인지와 정보매체 이용방법 습득	-모자녀 공동교육
가족원간 마음나누기	-가족원의 의미 -마음이란? 진정한 마음 나누기의 자세 -자녀 이해하기, 모 이해하기		2	-가족친밀도 증진 -대화만족도 향상 -자존감 향상 -가족응집성 향상	-모자녀 집단별 교육
대화훈련	-대화의 진정한 개념 이해 -나의 대화스타일 측정 -대화연습과 평가		3	-대화개념 인식 -대화기술 향상 -대화만족도 향상	-모자녀 공동훈련
집단 및 개별상담	-집담상담 프로그램 실시 -개별문제 상담		3	-자존감 향상 -생활만족도 향상 -가족응집성 향상 -사회적지지 인지	-모자녀 집단/개인별 상담
나눔과 모음	-공동작업(수공예품만들기) -공동놀이 -편지나누기		5	-가족응집력 강화 -가족친밀도 증진 -대화기술 향상	-모자녀 공동활동

상, 성역할관 개선, 생활만족도 및 가족관계만족도 향상, 의사소통 기술 습득, 가족응집력 강화, 사회적 지지 인지 등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있어서 공동교육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들의 자존감과 독립적 능력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선행연구(김재인, 1995)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한 여성의식교육을 중심으로 가족원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중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특히 부 부재로 인하여 성역할 교육이 부족하기 쉽고 보고 자녀들의 성역할 정체감 획득을 도와주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더불어 한부모가족 자녀의 사회집단성, 도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김중우 등, 1995; McLanahan & Sandefur, 1994)에 주목하여,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장 발전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동교육에서는 건강한 모자녀관계와 그 실천적 방법인 대화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3) 평가 및 분석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집단만을 대상으로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지 중 자존감, 성역할태도, 자녀와의 친밀도, 대화만족도는 SEI(Coopersmith,1967), SES(Rosenberg,1965), Lowman(1980), Barnes & Osmond(1982)를 비롯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 = .72~.83). 또한 생활만족도, 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 인지 등은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모두 Likert type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를 산출하였고 집단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paired t-test를 행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실태 조사

1) 교육 및 상담기관 실태: off-line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독립 교육/상담기관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 여성상담 및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상근 근무자 및 상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 중에서 주로 기관의 운영현황 및 상담자 자기평가에 관한 문항에 한하여 분석제시하였다. 1개 광역시와 1개 도지역의 총 12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33명의 상담원의 자료가 최종분석되었다.

2) 교육 및 상담기관 실태: on-line

한부모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상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색사이트 중 야후, 네이버, 엠파스를 이용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추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한부모가족에게 교육/정보제공, 상담을 실시하면서 3개월 이상 활동하고 있는 비상업용 사이트 3개, 상업용 사이트 9개 등 총 12개의 웹사이트를 선택, 정보제공 내용 및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집단 조사대상자들에게 컴퓨터사용실태, 한부모가족 사이트의 이용 실태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위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발전방향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보전달의 효율적인 체계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효과는 어떠한가?

<표 2>에서 보면 한부모가족 교육집단의 경우 교육효과는 자존감, 성역할관, 생활만족도, 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존감이나

〈표 2〉 집단별 교육효과 비교

변 인		교육집단			비교육집단	교육(사후)-비교육 집단차(t)
		사전	사후	Paired-t		
자 존 감	모	3.72	4.05	2.252*	3.24	-4.186***
	자녀	3.23	3.63	3.649***		
성역할관	모	3.58	3.03	-2.882**	3.04	0.208
	자녀	2.67	2.68	-0.069		
생활만족도	모	3.60	4.25	2.668*	3.29	-5.300***
	자녀	3.52	3.93	2.508*		
대화만족도	모	3.60	3.86	1.877	3.37	-2.896**
	자녀	3.17	3.44	2.774**		
자녀친밀도	모	3.70	3.93	1.524	3.49	-2.490**
	자녀	3.52	3.75	1.432		
가족응집성	모	3.75	4.35	2.449*		
	자녀	3.04	3.48	1.894		
사회적지지	모	3.60	4.05	2.438*		
	자녀	3.22	3.70	2.229*		

#가족응집성, 사회적지지는 교육관련내용 첨가로 비교육집단 비교는 제외함.

*p<.05 **p<.01 ***p<.001

만족도, 응집성, 사회적지지 인지 정도가 교육 후 상승하였으며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으로 변화하였다. 자녀의 경우에는 성역할관의 변화가 없는 대신 대화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성역할태도는 교육 전에서 상당히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의 대화만족도나 자녀와의 친밀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소통의 경우 선행연구(김경신, 1999)에서 지적하듯이 단기교육에 의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의 차이를 보면 성역할관을 제외하고 자존감, 만족도, 가족친밀도 등에 있어 교육후 집단과 유의차가 나타났다. 교육집단의 경우 교육 참가에 대한 열의가 있다는 점에서 비교육집단과 교육전부터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리라 보며 또 실제로 이들 교육 집단은 교육 경험의 비율도 높다는 것이 사전조사 결과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 및 상담 경험이 연속적인 효과를 가져와 주리라 확신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실태는 어떠한가?

1) 교육 및 상담기관 실태: off-line

관련기관의 종사자가 응답한 기관의 운영상태를 보면(표 3)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의 활동이 주로 지원주체(주로 행정기관)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로서, 기존의 일률적인 서비스 이외에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고 자립기반강화에 대한 욕구가 그리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독립적인 의지는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상담원 절대 부족 사태로 상담원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들 기관들이 전문기관이 아닌 백화점식 교육 상담기관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자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김양호 등(2002)의 연

〈표 3〉 운영관련 사항

운영비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운영상의 개선점	평균	표준편차
회비	7.43	10.26	재정지원강화	4.48	.76
지원금	79.99	30.71	자립기반강화	3.21	1.08
수익사업	5.50	12.59	교육·상담실적/평가향상	3.52	.71
기타수입-프로젝트 등	7.05	15.13	유능한지도자/관리자확보	3.88	.70
			상담원양적확대/질적향상	4.00	.50
			유관기관의 협조관계	3.45	.94

〈표 4〉 근무자/상담원의 자기평가 및 애로점

자기평가	평균	표준편차	교육·상담활동의 애로점	평균	표준편차
성실하다	4.06	.79	이론/기술면에서 부족하다	3.61	.70
자신감있다	3.94	.50	기관조직활동에 적응하기 어렵다	2.42	.71
창의적이다	3.67	.78	내담자와 관계수립이 어렵다	2.18	.73
사회문제의식이 있다	4.33	.65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	2.06	.79
열성적이다	4.12	.74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2.30	.95
끈질기다	3.91	.68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다	2.24	.75
계	4.01	.41	계	2.47	.52

〈표 5〉 향후 계획 및 요구

향후 직무교육요구	빈도	퍼센트	활동지속여부	빈도	퍼센트
상담이론	2	6.1	지속	29	87.9
교육·상담기술	14	42.4			
법률	7	21.2	비지속	2	6.1
일반이론	2	6.1			
사례관리	3	9.1	휴식 후 활동	2	6.1
자조집단관리	3	9.1			
기타	2	6.1	계	33	100.0
계	33	100.0			

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문가로서의 자기평가에 있어 사회문제의식과 열성을 지적받은 매우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표 3〉에서와 같이 근무여건 등이 개선된다면 사회문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활동상의 애로점에서도 이론/기술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이들의 전문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에 필요한 직무교육 영역으로 실제적인 기술 측면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진 점(표 5)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들은 근무조건의 열악성에도 지속적인 활동(88%)을 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이 개인적인 열의와 의식은 갖추고 있으나 제반 여건

조성이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 및 상담기관 실태: on-line

본 연구에서는 유무료사용 여부, 광고게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업성과 비상업성을 구분하여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상업적 사이트의 경우 그 수는 적지만 비교적 충실히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자조집단활동은 상업사이트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일부 상업사이트가 만남을 주선하는데 치우쳐 있을 뿐이지 진정한 자조 집단 육성과는 거리가 있고, 실제적인 자조활동 관리의 오프라인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원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비상업 사이트에서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상업사이트와 비교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잇점이 있어 이에 관련된 상담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부모가족의 최근 증가 추세에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비상업 사이트의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기관, 복지기관에서의 좀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상업사이트는 비교적 그 꾸밈이 적극적이고, 요부

호가정 이외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상업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인식하게 된다. 사이트 개폐쇄나 운영의 무책임성, 광고 등과 어울려진 사이트 내용의 번잡함, 회비에 따른 정보제공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혼을 중심으로 한 법률상담 등이 두드러지고, 회원제 운영이 소속감을 불어 넣어줌에 따라 토론방 등 준(準)자조조직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강기정 등(2002)이 지적한대로 짝찾기 수준의 채팅 기능 강화 등 진정한 자조조직으로서의 발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교육부분은 궁극적인 교육의 효과를 위한 것보다는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이 많아, 웹사이트를 이용한 교육기능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 분야는 구조화된 대면적 프로그램이 유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특히 회원제가 강화되면서 자녀가 이용할만한 내용과 기능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상업 사이트의 특성상 이용자 비율이 높은 분야를 선호

<표 6> 비상업적 한부모 관련 사이트(괄호안 숫자는 최근 1개월 상담건수)

사이트 명	교육	상담
hanbumo.womenlink.or.kr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 한부모 모임 중의 한 이름	- 한부모가족 자기개발을 위한 창작교실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한부모로 살기 위한 정보, 아이들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	- 한부모문제 상담란 단독 운영 - 비공개 상담 가능 - 상담내용별로 각 상담소로 연결(부부, 가족, 한부모, 일반, 가정폭력, 기타 등으로 나누어 상담)-(7건) - 주내용 : 상속, 취업,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혼시 자녀 성, 자녀 양육문제 등
newla.com.ne.kr 한국기독교법률협회	- 자유토론 유도 :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의 사연, 이혼의 갈등 속에서 슬기롭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 모음 등(활성화 전 단계)	- 상담코너에 이혼상담실 운영 - 공개상담 - 커뮤니티 공개상담실 운영(복합상담) - 주내용 : 이혼 후 양육비 청구 등 이혼 관련 상담 주종 (3건)
www.womenlaw.co.kr 여성법률상담센터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부설센터)	- 여성법률광장: '여성과 가정' 편에 이혼 관련 법률 정보 제공(위자료, 자녀문제, 재산분할 등) - 기타 여성관련자료로 학술논문이나 신문컬럼 제공, 법률서식 다운 가능	- 여성법률상담에 공개상담(127건)과 비공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혼후 자녀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호적정리등 다양한 법률분야의 상담 내용과 답변이 잘 정리되어 있음.

<표 7> 상업적 한부모 관련 사이트(괄호인 숫자는 최근 1개월 상담건수)

사이트 명	교육	상담
www.0to7.com 에듀토피아 중앙교육	- 맞춤정보검색형: '한부모' 입력후 가족 모임터, 네오머니경제(한부모경제론에 이혼 후 재테크 전략) 정보제공	
www.hanbumo.com	- 직업정보, 한부모의 권리(호주제 폐지), 이혼Q&A를 마련 - 유료정회원 이외 무료정회원은 일부 정보 이용 가능	- 한부모게시판은 유료 정회원만 이용가능 - 한마음게시판은 한부모관련 기사정리식의 내용.
www.solo.com	- 한부모가정 코너 별도 운영(정기모임, 자녀와 함께 피크닉 등 행사 진행) - 이혼, 이혼직후, 이혼 후에 대한 법률상 절차나 정서적인 면에 대한 정보제공	- 유료정회원만 상담내용 공개 - sub link에 이혼sos, 솔로 아이들(회원자녀 전용 site-초딩, 중고딩방)만의 공간운영
www.durimoo.co.kr 결혼정보회사		- 한부모가정이야기 - 재혼가정이야기: 게시판을 통한 이야기 공간 활용. - 법률상담코너 운영(4건)
www.divorcenet.co.kr	- 이혼 시 필요한 정보와 이혼 후 적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이혼가족 부모교육과 자녀교육도 병행	- 한부모가정을 위한 상담코너 단독운영(이혼 전후 적응을 위한 전문가 클리닉코너 운영)(9건) - 주내용: 이혼 후 자녀문제, 법률문제, 도움받을 수 있는 모지원기관, 양육비 지원 방법, 재혼에 관한 상담 등(40건)
www.happydate.org	- 이혼, 재혼가정별 정기모임 진행(자조모임) - 모임후기 등 제공 - 한부모한사랑코너에 고슴도치(한부모로 살면서 자녀키우며 사는 이야기를 풀어 놓은 코너), 자녀교육자료실 운영	- 비회원들의 전용게시판인 이혼상담 코너 운영(12 건) - 자유게시판을 통한 이혼상담: 답변글은 회원들이 올림
http://www.nowme.net	- 이혼 후 자녀양육형태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 건강한 만남과 헤어짐, 성에 관한 정보 등 제공	- 유료 정회원만 상담코너 이용 가능 - 상담 유료화:시간당 이메일, 전화상담(1만원), 면 접상담(5만원), 가족상담(10만원) -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자녀사랑(13건), 이혼(14 건), 재혼이야기(5건)
http://www.ssolo.co.kr	- 토론방: 자녀양육, 재혼, 취업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정보도 제공. - 동호회가 있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끼리 매달정기모임 운영	- 나만의 삶: 혼자가 된 후 당당한 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 나의 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는 공간 - 이혼에 대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과 이혼하신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는 자리
www.cyberjubu.com		- 함께 푸는 고민상담실 내 한부모자녀상담실 운영 (3건) - 자유게시판 운영

하게 되면서 사별보다는 이혼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어 특성별 정보제공이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며, 캠페인 등 사회운동과 계몽 성격의 내용이 부

족하여 적극적인 교육·상담매체자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 못하다.

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효율적 정보전달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의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알아본 결과는 <표 8~9>와 같다. 편모의 경우 컴퓨터 사용 비율은 70% 이상이고 이중 인터넷 정보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 자녀는 메일송수신, 게임의 순이다. 한부모사이트 이용 현황은 이용 안하는 경우가 2/3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부모 사이트를 통하여 가족관계 지원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자조조직, 친교 등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업사이트의 운영 비중과는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편모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요구보다는 가족 전체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상담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상의 적극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부모가족의 정보전달체계 구성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본 연구가 교육 및 상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보전달 방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이 이루어져 점진적으로 다수의 대상자가 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교육 수강자는 교육효과지속이 가능하도록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오프라인 교육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강화교육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표 8> 조사대상자의 컴퓨터 이용현황 (%)

	모	자녀
메일 송수신	21.6	32.9
인터넷 정보이용	27.0	17.7
문서작성	16.2	12.7
인터넷 쇼핑	5.4	6.3
게임	-	30.4
사용안함	29.7	-
계	100.0	100.0

<표 9> 조사대상자의 한부모 사이트 이용현황 및 요구도 (%)

이용 경험		요구도	
자주이용	11.1	가족관계지원	51.9
한 두 번 이용	22.2	상담	29.6
이용안함	66.7	자조조직·친교	3.7
		각종정보제공	11.1
		기타	3.7
계	100.0	계	100.0

<표 10> 한부모가족 정보전달체계의 구성

제공자	사용자	정보내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행정부	한부모가족	• 교육·생활정보	• 웹서버	• off-line:
공공기관	독신가족	• 상담치료정보	• 홈페이지	교육상담관련
민간기관단체	재혼가족	• 사회복지사업정보	• 복지정보시스템	resource
연구기관	사회복지전문가	• 법령	• 전자정부시스템	• on-line:
개인/집단	상담·치료사	• 지원제도	• 관련정책	컴퓨터장비
	법률·행정가	• 관련연구	• 각종지원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련학자	• 개인정보		통신장비 등
	일반인	• 관련사이트		

서는 자조집단 결성, 관련 홈페이지 구성 및 연결 등 교육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온라인의 교육상담 형태가 다양하고 신속하게 전달이 가능하나 그 효과 탐색과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구조화된 교육이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상담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의 한부모가족(저소득층, 장애아가정, 농촌가족 등)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 교육상담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관련기관 담당자의 경우 전반적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담당자들에 대한 관련전문교육, 워크숍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전문가로 성장하여 전문기관에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원 확대 이외에도 전문교육 기회제공, 상담원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여성개발원(2000)의 연구에서도 가족상담의 접근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족상담기관의 지정, 가족상담원 자격증제도, 가족상담 전문요원 양성 등을 제안한바 있다.

네째, 대부분의 한부모가 장시간의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정의 교육과 상담은 야간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경우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은 최근 온라인 매체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사업 운용이 필수적이며 통합기구가 생기기 전이라도 정부, 공공기관 등의 비상업적인 사이트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의 복지 사업 진행과정상으로 볼 때 여성관련 상담소 및 상담사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요보호자원체계 이외에는 교육상담사업의 큰 발전

이 없다가 최근 가족해체가 증가하여 여성가장이 증가하면서 여성사업으로서의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프로그램을 기존의 여성 관련시설이나 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여성복지시설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시스템이 지역마다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특화되어야 하겠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선행연구(김경신, 1997)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교육상담의 가장 유용한 기관으로 대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이 선택되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대학교는 제도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원과 정보의 교류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교육기관 전문가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공동 연구사업이나 심의위원회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리라 본다. 전문교육전담기구의 구성이 어렵다면 지자체나 기타 사회조직간에 상호 밀접한 정보교환과 공동 훈련, 사업협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자체 실시 이후의 가정복지 분야에서 확고한 변화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관련부서는 1996년 초 조직 개편에 따라 가정복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와 통합한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여성업무의 축소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관련 부서의 장이 어떠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내용의 차이가 심하여 일부 지자체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관련 활동가의 상향적 연계노력이 이루어져 이를 극복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전달 채널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덟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온라인 매체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지원이 허약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은 모자녀간 호혜성이 강하다는 점

(공선영, 2001, 옥선화 등, 2002)에 기초해 볼 때 한부모가족의 복지 수준은 자녀적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녀지원 내용과 체계가 좀더 강화되어야 하겠고 특히 문제가족원을 둔 아동의 특별관리, 즉 알콜, 도박, 폭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 장애 및 만성질환, 정신질환 가족원이 있는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시행되어 한부모가정과 문제 가정이라는 이중, 삼중의 제한점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홉째, 상업적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피드백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업 사이트에 대한 관리적 개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행정부서가 주축이 되는 통합적인 정보전달체계 수립에 의하여 사이트의 건전성, 유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능 등의 한계성이 앞서 지적되었으므로, 오프라인 교육상담의 효율성 검증과 지속적 병행 실시가 요구된다 하겠다.

열번째, 이혼 등의 현상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혼가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대상의 다양성으로 극복되어야 하겠으나, 공공 정보 전달매체의 사회계몽, 운동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대한 예방 기능의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비상업적 사이트의 강화가 더욱 요청된다.

열한번째, 향후 온라인 상담이 확충된다 한다면 상담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매뉴얼식 상담 시스템 등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일정한 양식에 의거 내담자의 상황과 문제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연구결과에서도 상담의 양적 비중이 법률 상담 등에 치우쳐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상담 방식은 상담의 효율성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가족의 70%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긴 하였으나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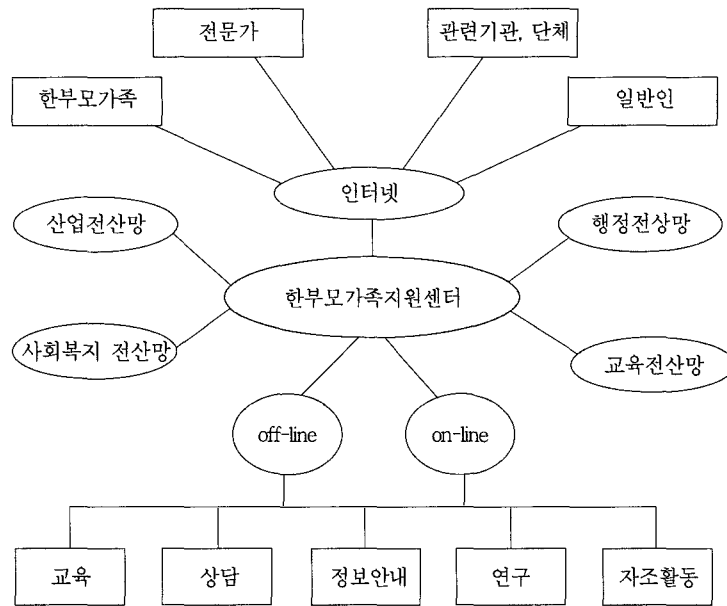
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 통신망 연결 지원 사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향후 온라인 매체의 일상화가 전제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또다른 차별 및 소외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V. 결 론

자원의 절대적인 결핍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교육상담을 통하여 가족원의 응집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결핍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날로 증가하리라 예견되는 가족 해체의 문제를 방지, 치료하는 길 중 하나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을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들 구성원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일차적인 과정이겠으나 부모자녀 결속이 아직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자녀세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한부모가정 문제의 예방적 기능도 병행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 한부모의 경우는 사회의 최하위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빈곤계층으로의 유입 예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양해경, 2001). 그러한 의미에서 한부모가정 정책은 단순한 복지지원보다 차세대를 통한 국가개발이라는 대전제에서 정책 프로그램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전달체계의 적용은 새로운 세대의 삶의 방식에 적합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재정적 지원이나 시설보호사업 등에 치우쳐왔다. 그러나 이제 그 양적 증가추세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요보호여성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소수의 특별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라기



〈그림 1〉 한부모가족 정보전달 체계 구성도

보다 일반가정과 개인에 대한 포괄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관행과 형식에 치우친 사업들, 예를 들어 가족놀이 행사나 여가 프로그램보다는 가족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지원 방식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상업적 정보전달 매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행정기관 등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은 실제적인 대면적 방법 이외에 다양한 정보전달 채널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 향후 미래지향적 정보전달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협력망 구축을 통한 종합지원기구의 설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반적인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도 크게 전환되어 관련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탄력적이고 사회 변화에 적응적, 효율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토대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전달 방식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정보전달 체계는 가족기능 유지를 위한 좀더 통합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다원화된 상담서비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책임자 하에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조직간에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상담 서비스 조직간에 연계,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김태현 등, 2000). 장혜경(2001), 양해경(2001)의 연구에서도 전담부서 설치나 지역복지기관 연계망 수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통합된 기구가 구성되어 행정기관 주체의 종합정보전달체계가 조직화 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소관분야별 한부모가정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정보전달체계구상도를 제시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합적 중심체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한부모가족 당사자,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일반인 등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개방체제를 갖추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 복지 수준 확립, 지원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산업전산망, 사회복지전산망, 행정전산망, 교육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다양한 교육, 상담, 정보안내, 연구, 자조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체계는 물론 진행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등 사회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초에는 국가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정, 이무영, 김영희(2002).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웹사이트 활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김경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 김경신(1999).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7(3), 127-142.
- 김득성(2001).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김양호, 박정희, 유계숙, 전춘애(2002). 모자보호시설 입소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와 입소 어머니의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99-113.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인(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9, 5-36.
- 김정자(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여성연구, 3(1), 30-78.
- 김종우, 장환일, 반건호(1995). 부의 결손이 청년의 성격요인 및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4(1), 216-227.
- 김태현, 김순옥, 임춘희, 조은숙(2000). 가족상담서비스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61-186.
- 양혜경(2001).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하여.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옥선화, 성미애, 이재림, 이경희(2002). 빈곤 여성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 유영주, 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49-68.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교문사.
- 임춘희(1999). 가족상담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상담체계구축과 가족상담교육을 위한 세미나」,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 장혜경, 송다영, 김영란, 김정훈(2001).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 여성가장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조성혜(1997).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가족의 자조집단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최선화(2000). 편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 개

- 발. *한국가족복지학*, 6, 187-214.
- 최연실(1999). 가정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통계청(1966, 200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한국여성개발원(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 대책.
- 한국여성개발원(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현온강 이순덕(1992).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1), 131-146.
- Amato, P.R. (1987). Family proces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 327-337.
- Barnes, L.H., Osmond, D.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rman, W.H. & Turk, D.C. (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 Booth, A. & Amato, R.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Hetherington, M. & Anderson, E. (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Lowman, J.C. (1980). Measurement of family affectiv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130-141.
- McLanahan,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Havard University Press.
- Webster-Stratton, C. (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17-430.
- Weinraub, M. & Wolf, B.M.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97-1311.
- Weiss, R.S. (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

(2003년 3월 27일 접수, 2003년 6월 12일 채택)